MYANMAR

2018 한세예스24문화재단 국제문화교류전

(2018 HansaeYes24 Foundation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Exhibition)

미소의 땅 미얀마, 관계의 미학을 키우다

An Aspect of Myanmar Art

HANSAE YES24 FOUNDATION

2018 한세예스24문화재단 국제문화교류전

(2018 HansaeYes24 Foundation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Exhibition)

미소의 땅 미얀마,
관계의 미학을 키우다

An Aspect of Myanmar Art

2018년 9월 12일~9월 17일

인사아트센터

전시 연관 세미나 : 9월 15일

[미얀마 사회와 현대미술: 미얀마 현대미술과 그 행간에서 읽어야 할 것들]

오후 3:00~3:40 **전통 인형극 및 음악공연** / 오후 3:40~6:00 **세미나 및 토론회**

[참석자: **민웨옹** (작가), **모뇨** (작가/미얀마 국립예술고등학교 교장), **김성원** (부산외국어대 미얀마어학과 교수), **서준호** (오뉴월 대표), **심상용** (동덕여대 큐레이터학과 교수)]

목차

인사말

조영수 | 04
한세예스24문화재단 이사장

전시감독의 글

"왜 우리는 이토록 고독한가?"

심상용 | 06
동덕여자대학교 큐레이터학과 교수

작가소개

민 웨 웅 Min Wae Aung | 18
산 민 San Minn | 26
뤼 민 Lu Min | 36
틴 윈 Tin Win | 42
아웅 민 Aung Myint | 56
모아 똔 Moat Thone | 62
모 뇨 Moe Nyo | 68
틴 타이 아웅 Tin Htay Aung | 76

작가 약력 | 84

Contents

PREFACE

Cho, Youngsoo | 05
Chairman of the Board, Hansae Yes24 Foundation

DIRECTOR'S NOTE

"Why Are We So Lonesome?"

PhD Sim, Sang Yong | 12
Professor, Dept. of Curatorial Studies and Art Management, Dongduk Women's university

ARTISTS

Min Wae Aung | 18
San Minn | 26
Lu Min | 36
Tin Win | 42
Aung Myint | 56
Moat Thone | 62
Moe Nyo | 68
Tin Htay Aung | 76

Biography | 84

인사말

한세예스24문화재단의 네 번째 국제문화교류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난해 태국미술전을 마치고 1년여의 시간 동안 더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저 역시 직접 미얀마 현지를 방문해 작가들을 만나고, 직접 눈으로 작품들을 확인하면서 이번 미얀마 전시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미얀마는 아직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미술계의 갈라파고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소박하면서도 담백한 작품들뿐 아니라 자신들의 문화와 사회상을 냉철히 바라보는 작품 등 다양한 작품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국제문화교류전 '미소의 땅 미얀마, 관계의 미학을 키우다'를 통해 미국, 유럽 등 선진 미술시장과 유명작가들에게만 쏟았던 관심을 미얀마와 같은 미술계에서 소외되었던 국가들의 작품과 작가들에게도 주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저희 재단은 지난 2015년 베트남미술전을 시작으로 2016년 인도네시아 바틱전, 2017년 태국미술전(The Spirit of Thailand)에 이어 올해 미얀마미술전까지 아시아 국가들의 과거와 현재를 미술작품을 통해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왔습니다..
매년 2천여명의 관람객이 미술전을 찾았고, 더 많은 분들이 앞으로 더 좋은 작품들을 경험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저희 재단의 국제문화교류전을 통해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재단은 국제문화교류전 외에도 단순히 한국 문화를 알리는데 그치지 않고 아시아의 문화를 한국에 알리고 그들의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학생 해외봉사단 파견과 한국에 온 해외유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장학 사업, 차세대 아시아리더들이 아시아 문화의 공동 번영과 미래를 토론하는 아시아 문화교류 포럼 등의 학술연구 지원 사업, 국내 기초의학발전에 기여한 의학도들을 위한 의당학술상 시상, 국내 최초로 진행하고 있는 아시아문학번역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재단이 국제문화교류전뿐 아니라 더 좋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다시 한번 미술전을 찾아주신 많은 내외귀빈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미얀마 미술의 진수를 느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9월

한세예스24문화재단 이사장 **조 영 수**

Preface

I'd like to extend my warmest welcome to the visitors to the 4th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Exhibition hosted by Hansae Yes24 Foundation.
After "The Spirit of Thailand" came to a close last year, we made even more efforts preparing for this exhibition for around a year. I personally went to Myanmar to meet the participating artists and saw with my own eyes the works to be displayed. In the process, I gain a sense of conviction about the Myanmar Exhibition.
Myanmar is called the Galapagos of the Art World, as its art is now well-known to us. While organizing this exhibition, I became aware that there exist diverse works produced by Myanmar artists such as simple yet pleasantly impressive works and works that provide a deep and impartial insight into their culture and society.
I hope that the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Exhibition: "An Aspect of Myanmar Art" provides you with an opportunity to shift your attention from the world-renowned artists and the art markets of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European countries over to the works by artists from countries that have been neglected and overlooked by the art community such as Myanmar.
Our foundation has been creating opportunities for the general public to indirectly and directly experience the past and present of Asian countries through artworks, starting with the Vietnamese Art Exhibition in 2015, followed by the Indonesian Batik Exhibition in 2016 and the Thai Art Exhibition: The Spirit of Thailand in 2017.
Around 2,000 visitors came each year, and it is my sincerest hope that many more people will seize the opportunity to experience exceptional works of art provided through the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Exhibition hosted by our foundation.
In addition to the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Exhibition, we have been dedicating our efforts to not merely promoting Korean culture, but to demonstrate Asian cultures to Koreans and to help Koreans gain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ir culture. We dispatch volunteer groups comprised of college students abroad and have a wide range of scholarship programs for international students studying in Korea. In addition to carrying out academic research support programs such as the Asian Cultural Exchange Forum, where the next-generation leaders of the future come together to discuss Asian culture, joint prosperity and its future, we also host the Uidang Scholarship to honor medical students contributing to the advancement of basic medicine in Korea and have bene running Korea's first Asian culture translation program.
I ask that you not only take interest in the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Exhibition of our foundation, but also provide us with your support as we pursue greater activities and endeavors. Thank you again to everyone visiting this exhibition, and I hope you get to feel the essence of Myanmar art.
Thank you.

September, 2018

Cho, Youngsoo, Chairman of the Board Hansae Yes24 Foundation

MYANMAR

"왜 우리는 이토록 고독한가?"

심상용
(미술사학 박사. 미술평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 땅이 미소의 발원지였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서 미소란 자기 내부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그런 것이다.… 머나먼 지구의 한 모퉁이에서 바라본 그 미소는 내게 새로운 의미가 되었고, 나는 그 새로운 윤회 속에서 한참 동안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 … 나는 언젠가 때가 되면, 이곳, 혹은 이 나라의 어느 사원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 서양의 어느 병실의 하얀 침대나 텔레비전 보도를 통해 우리가 잘 아는 연약하고, 마비되고, 이가 빠지고, 목소리를 떨거나 치매에 걸린 노인들이 사는 보호시설 같은 곳이 아니라 … 다시 말해 오래 사는 것이 최상의 복임을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처럼 전하는 사회 속에서 마지막 귀환병들의 보루가 되는 그런 곳이 아니라…"

– **크리스틴 조디스** (Christine Jordis) – [1]

왜 우리는 이토록 고독한가?

어떤 의미있는 단서를 포착하는데, 두 번의 여행을 포함해 6개월이 소요되었다. 그 기간 동안 나는 무언가 결정적인 생각이 떠오르기를 기대하며 기다려야 했다. 아마도 온갖 종류의 미적 극단주의로 점철해온, 지난 세기 주류 미학의 두꺼운 맥락을 뚫고 나오는데 마땅히 소요되었어야 할 시간이었을 것이다. 서구미술의 긴 학습과정을 거치고, 그 경험에 미적 사유의 상당부분이 위탁해 온, 다른 한편으론 가장 감각적인 대중문화의 신 발원지로 부상한 한국에서 은둔의 땅 미얀마의 동시대미술을 선보이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매우 흥미진진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어둠의 장막 뒤에 머물렀던 역사를 뒤로하고, 막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동남아시아의 한 나라에서, 그리고 그것의 이제껏 드러나지 않았던 생명력을 논하는 자리에서, 서양미술을 공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언급하는 것은 자제해야 할 일이지만, 더 나은 인식을 위한 적절한 비교는 마땅히 허용되어야 할 터이다. 서구 미술, 한 때는 치열한 역사의 호흡이었던 그것의 현재는 현저한 퇴락을 노정하면서 '구멍 뚫린 잠수함'같은 거동을 보이고 있다. 그 내러티브는 여전히 분노도 발하고, 애도하고, 비판의 날을 갈고, 자조적인 경멸과 조롱의 어조를 벼르지만, 그것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예전만 한 것이 없다. 그것이 자유의 선언문들을 낭독하면 할수록, 더욱 박탈당한 자유가 도드라져 보이곤 한다. 서구미술은 승리를 거둔 문명의 결정적 방증으로서의 특권을 더는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제 시간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불행과 억압을 겪고 살아남은 희생자들"에게 미래를 맡기기 시작했다. 그 대열의 한 가운데, 크리스틴 조디스(Christine Jordis,1942~)의 신뢰할만한 리포트에 등장하는 "돈이 없지만 베풀 줄 알고 웃고 농담할 때마저도 아름다운 자태를 간직하고 있는" 미얀마의 사람들이 있다. 이들과의 비교를 통해 서구미술이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자유'로 무엇을 경영했던가가 드러난다.

"프로메테우스의 화신인 서양인들은 자유를 원했다. 바로 거기에 그들의 위대함이 있고, 바로 그 점에 모든 사람이 동의했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그 자유로부터 상당한 특권을 맛보기는커녕 대부분 그 특권에 대한 무거운 대가만을 지불하면서 그 쓰임새와 의미를 점차 상실해 버리고 말았다." [2]

조디스는 특히, 그리고 직관적으로 서구의 근대가 가장 톡톡하게 지불해 온 대가로서 서구의 고독에 주목했다. [3] 그들은 "베풀고 남들과 함께 나누어야 할 필요성을 망각한 채", 대단히 부질없고 서글픈 '홀로서기'를 연습하는데 인생의 거의 전부를 소모하다, 아는 사람은 고사하고 낯익은 자취, 기억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마저 짓밟힌 병실이나 노인보호시설에서 생을 마감하는 문명에 관한 것이었다. 이것이 치열한 자유 추구의 정신의 산물로서, 성공적인 서구근대정신과 미학에 저주처럼 달려 있는 훈장이다.

올더스 헉슬리(Aldous Leonard Huxley)의 『아일랜드(Island)』에 나오는 인물 닥터 로버트(Dr, Robert)는 자유를 위해 더 많은 것들을 버려야 한다고 역설하는, 전형적으로 서구적인 반성에 매몰되어 있는 인물이다. 그는 말한다. "불행히도 그러한 행동력과 헌신, 그리고 자기희생은 이성과 인간의 존엄성은 말할 것도 없고 자유와 양립할 수 없어."[4] 헌데 그것은 헉슬리가 비판하는 바로 그 문명이 추구해온 것이기도 하다. 실제, 서양은 자유를 위해 의지에 찬 행동력과 헌신, 희생정신 같은 가치를 가차 없이 폐기해 버렸다. 서구미술은 아방가르드가 아닌 모든 걸 버리고, 형식이나 색의 순혈주의 외의 것들을 폐기하고, 개념이 아닌 물질계 전체를 추방하는 식이다. 그리고 그것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오늘날 그 복원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아방가르드도, 순혈주의로 정제된 형식이나 색채도, 물질계로부터 격리된 정화된 개념도 아니다. 대체로 그럴싸하게 들리는, 세상이 얼마나 더러운 수렁인가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은, 종종 가상한 일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결코 정의롭거나 선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불안의 시대(The Age of Anxiety)』를 쓴 시인 웨스턴 휴 오든(Wystan Hugh Auden.1907~1973)은 말했다. "말만하는 인간을 믿지 말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넓고 푸른 초원을 상쾌한 마음으로 활보하는 것"이지, 그렇지 못한 원인들에 대한, 전문용어들로 넘쳐나는 진단서가 아니다. 힘을 다해 현실의 파국을 폭로한다는 자부심에 넘치는 예술은 정작 이 점에 대한 무지를 드러냄으로써, 마치 환자에게 어떤 세균 때문에 병이 생겼는지를 말해주기만 하는 무용한 의사 같은 존재가 되고 만다.

말이 나온 김에 짚고 넘어가자. 현대예술의 고독과 상실의 뉘앙스가 그와 같은 세상을 반영하기 때문이라는 판에 박은 재현론은 신중하게 재검토되어야 할 것들 가운데 하나다. 사실은 이렇다. 오늘날 차고 넘치는 어둡고 슬픈 표현들은 종종 어둡고 슬픈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더 많은 경우 어떤 위로도 없이 비극과 무지, 공허를 숭배하는, 이 시대의 길을 잘못 들어선 휴머니즘에 있는 것이다. 아마도 헉슬리였다면 그 자유가 존재 내의 근육질 형 인격과 피터 팬 인간들을 더욱 날뛰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단박에 말했을 것이다.

고독의 대리인으로서의 미학 너머 '관계의 미학'

'자유와 고독을 맞바꾼 것'을 서구 근대미학사의 요약으로 단정하는 건 과한 비약일 터이다. 그렇더라도, 인도 작가 아룬다티 로이(Arnundhati Roy.1961~) [5] 의 말이 전적으로 옳다. 고독은 이미 '어설픈 다국적민들'의 돌이키기 어려운 천형(天刑)으로 자리 잡았다. 정체성의 근간 또는 핵심, 그러니까 변형되지 않아야 할 최종적인 것마저 상실해버리는 것에 의해, 외로움은 사람을 내부로부터 무너뜨리는 가공할 적이 되고 있다. 그 때, 너무 비싼 값을 지불하고 얻은 자유가 무슨 쓸모가 있는지를 뒤늦게 되묻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야 말 것이다.

이 어설픈 다국적민의 범주에 우리–한국인–를 포함시킬 것인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숨 쉬는 공기, 밟는 땅, 마시는 물, 지닌 사상"으로부터 소외된 모든 곳에서, 필연적으로 천형으로서의 고독과 그 대리인으로서의 미학이 영역을 확장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해 갈 것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당연지사, 미얀마 작가들의 시선에는 그들이 사는 세상이 담겨 있다. 그 세상의 우선하는 특성은 '인간관계의 풍부함'으로부터 추방되는 사람이 현저하게 적다는 것이다. 미얀마에서 적어도 아직은 고독은 쉽사리 통용되지 않는다. 온화함, 평화, 자비로움…, 이것이 1994년부터 민 웨 웅(Min Wae Aung. 1960~)의 회화에 등장하는, 관객에 등을 보인 채 걸어가는 한 무리

1) 크리스틴 조디스, 『미얀마 산책』, 고영자 역(서울: 대숲바람, 2012) p.55, pp.160~161.

2) 크리스틴 조디스, 앞의 책, p.154.
3) 앞의 책, p.43.
4) 올더스 헉슬리, 『아일랜드』, 송의석 역(서울: 청년정신, 2008) p.235.
5) 소설 〈사소한 것들의 신(The God of Small Things)〉(1997)으로 1997년 맨부커 상을 수상했다.

의 사람들이 들려주는 '미얀마에서 삶의 정의'와 관련된 이야기다. 처음 그것은 하루의 고된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가족의 이야기였다. 그들은 신발을 신지 않아 갈라진 발과 무거운 짐을 져야 하는 어깨에도 불구하고, 고단한 일상의 행간을 삶을 향한 사랑으로 매운다. 그 행렬의 주인공이 승려들일 때, 그들의 여정은 현세에서 시작해 내세로 이어지는 것이 된다. 가족도 등지고 손에 쥔 재물에는 미련이 없는 그들에게는 오로지 그 여정이 삶의 모든 특혜를 대변한다. 민 웨 웅의 세계에는 동행이 없는 여정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고독의 침습 또한 허용될 수 없다. 그는 이 행렬을 대체로 큰 규격의 캔버스에 그리곤 하는데, 그 앞에서 보는 이 역시 그 행렬의 일원으로 초대해 들이기 위한 미적 전략의 일환이다.

관자를 압도하는 민 웨 웅의 걸어가는 사람들의 행렬은 질서정연하지만, 그 질서는 어떤 강요나 강제도 요구하지 않는다. 어떤 집단의 정의나 이념도 사람을 배제하는 구실로 호출될 필요가 없다. 연신 주변을 두리번거리거나 뒤를 돌아보는 산만한 동자승도 대열에서 결코 낙오되지 않을 것이다. 민 웨 웅은 미얀마의 전통적인 화사한 오렌지색이나 노란색, 밝게 빛나는 황금색으로 하나의 세상을 그려낸다. 그 세상은 "퇴물이 되어 잊혀지거나 죽음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런 할 일이 없는 외톨이로 늙어가는 노인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세상이다.

미얀마의 전통사회에선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익명으로 살아가면서, 그 누구와도 대화를 나누는 일 없이 무미한 생존만을 반복하는 고독한 사람은 발견할 수 없다"고 다시 조디스는 말한다. [6] 틴 윈(Tin Win, 1952~)이 바라보는 세계에도 삶의 비열함으로부터 발원하고 그 비열함을 다시 배증하는 근원으로서 고독은 좀처럼 쉽게 끼어들지 못한다. 틴 윈이 즐겨 그리는 미얀마의 소수 민족 사람들, 예컨대 버마계 나가(Naka)족 사람들의 패인 주름살은 녹록치 않은 삶의 흔적임이 분명하다. 인구의 85%가 농업에 종사하는 만큼 그들의 삶은 고되다. 하지만, 문명사회의 영혼을 공격하는 외로움을 위한 자리만큼은 그들의 표정에 없다. 미얀마의 미술이론가인 아웅 민(Aung Min)은 그 미소가 세속을 떠난 부처의 그것과 매우 닮아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물론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기독교인이기도 하다지만, 그 점이 아웅 민의 진술을 틀린 것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틴 윈의 인물화는 기존에 작성되었던 그 어떤 인류학적 보고서보다 더 객관적이고, 어떤 르포기사보다 더 심층적이다. 틴 윈의 인물화들은 애정 어린 관찰과 묘사, 절제된 색채, 정교한 붓의 실행과 독창적인 텍스춰가 여전히 문명의 어떤 언어보다 더 강력하고 인격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무이한 언어임을 여실히 증명한다. 기법은 여기서 정교한 문법의 일환이다. 이 언어는 인간의 저 깊은 내면의 소통까지를 자신의 범주로 삼는 그런 언어다. 이로 인해 틴 윈은 나가족의 역사와 전통을 그리지만, 우리는 존재의 보편성에 대해 듣는다.

틴 윈은 유입된 서구 모던 아트가 활발했던 1960년대 만달레이에서 수학했지만, 이후 미얀마의 전통미술, 특히 전통 벽화에 대한 관심과 사실주의로 선회했다. 민 웨 웅과 함께 했던 미국여행(1993)을 계기로, 전통적인 주제부와 회화기법에 서구 모던아트의 형식적 접근을 교호시키는 그만의 독창적인 길을 찾기 시작했다. "삶에 대한 미얀마적인 포용을 사실적인 묘사와 모더니스트적 형식이해가 공존하는 언어로 풀어내는 것이다." [7]

참여 작가 가운데 최고령인 아웅 민(Aung Myint, 1946~)의 오랜 주제는 어린 시절 여인 이후, 오랜 기간 고통스럽게 그리워했던 어머니다. 젊은 시절 앞장서서 서구 모던아트를 수용했던 그였다. 시기별로 인상주의 풍과 큐비즘 등의 형식실험을 두루 거쳤던 그였지만, 1996년 이후 점차 마얀마 전통미술의 조형적 특성으로 귀의하기 시작했다. 이전의 격한 감정 분출과 강렬한 색은 어느덧 조용하고 느린 선과 전통 종이, 그리고 전통적인 주제로 예컨대 《엄마와 아이(Mother and Child)》 연작으로 대체되었다.

약속된 그의 아틀리에 방문을 위해 양곤 시내를 지날 즈음, 아웅 민 측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오랜 숙환으로 몸 상태가 안 좋아 직접 대면이 어렵다는 내용이었다. 아틀리에에서 자유롭게 작품을 둘러보고, 원하는 작품이 있으면 출품하겠노라 했다. 하지만 아틀리에에 도착했을 때, 그가 부축을 받은 채로 나타났다. 깡마른 얼굴에 깃든 병세는 한 눈으로도 꽤 깊어 보였고, 그 때문에 간단한 문답이 오가는 동안에도 이내 호흡이 가빠지곤 했다. 그의 추상회화들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최근작인(2016), 머뭇거림 없는 터치들로 그려진 〈미얀마 여인〉에 대해 이것저것을 물었기 때문이다. 아웅 민은 그녀들이 긴 머리를 늘어트린 전형적인 버마족 여인들이라고, 느리지만 또렷하게 답했다. 자신의 오래 된 주제인 '어머니'와 '자신의 땅'으로 되돌아 와, 그곳에서 자신을 확인하곤 하는 것이리라. 언젠가 아웅 민 자신이 표현했던 대로, 어머니야말로 "그의 영감이 내밀하게 소생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런 맥락에서라면, 아웅 민의 삶과 예술은 마치 존재의 내면에 깊게 자리하고 있는 귀소의 특성, 곧 자신이 온 곳으로 돌아가는 존재의 특성에 대한 보고라 해도 무방할 터이다.

모뇨(Moe Nyo, 1976~)는 풍경에는 늘 불교 사원이 그 중심에 있다. 그의 풍경에는 " 'yes'라고 말하거나 'no'를 말하기 위해 세상이 떠나갈 듯 으르렁대는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는다. 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말하는 화자(話者)는 한두 그루의 나무, 만개한 꽃, 맑은 하늘, 구름이다. 이 세계에선 모든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할 만큼만 있다. 물질계는 충분한 수분과 최소한의 안료만을 허용하는 그의 수채화 기법에 의해 명상과 시에 최적의 상태로 감량된다. 감각적 탐미는 절제된 안료의 알갱이들만큼만 허용된다. 모뇨의 풍경화는 '비움의 미학'과 함께 세속의 욕망이 정확하게 자기 몫, 자신의 분수만큼만 존재할 때 비로소 획득되는 매우 높은 수준의 평화의 실현이다. 보들레르가 쿠르베의 실증주의적 풍경을 상상력에 열정이 결핍된 부족한 것으로 평했던 것을 기억하자. 하지만, 서양미술사에선 풍경화 자체가 이미 미학적 실증주의와 궤를 함께 해온 장르다. 신성(神性)에의 초대, 초월에 대한 명상, 기도, 구원에 대한 기대가 소멸되면서 비로소 역사에 등장한 것이 풍경화인 것이다. 레지스 드브레(Régis Debray)가 풍경화를 '개종'이라고 했던 이유다. "개종이되, 어디까지나 밑바닥을 향한 것으로, 성서로부터 지상으로, 무형의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신성의 빛에서 땅을 스치는 빛으로의 개종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모뇨의 풍경화는 '개종 이전'의 풍경, 곧 서양미술사에선 존재할 수 없는 풍경화다. 모뇨의 풍경화는 개종 이전에 소망되었던 미덕들로 구성된다. 평화, 그리고 비움으로써 채워지는 것에 대한 기대…. 일찍이 미얀마를 방문했던 프랑스인 니콜라 부비에(Nicolas Bouvier)는 그 특별한 평화의 근원이 불심(佛心)으로부터 도래한 온 것이라고 확신했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선량한 불교가 뿌리내린 그곳에, 불교는 매우 특별한 성질의 평화를 정착시켰다." [8]

모 뇨의 명상적인 풍경과는 달리, 틴 타이 아웅(Tin Hyay Aung, 1976~)은 파고다 주변부에 형성되는 소달구지들의 집결지를 그린다. 특히 미얀마 중부의 광범위한 시골지역들에서 매년 파고다 축제가 열리면, 원근각처의 사람들이 소달구지를 타고 몰려들어 파고다 주변으로 소달구지들의 큰 집결지가 형성된다.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소달구지는 서구의 캠핑카와도 같다. 소달구지를 타고 모여든 사람들은 사원에서 기도도 올리고, 그들의 일상에선 볼 수 없었던 진기한 물건들을 보거나 사기도 하고, 여러 문화적인 이벤트들을 즐기기 위해 기꺼이 소달구지 여행길에 오른다.

소달구지 여행은 미얀마 중부에선 가장 고양된 삶의 한 순간으로 자리매김되어 있다. 각양각생의 소달구지들은 그들의 삶의 정제된 반영이다. 그래서 그것들은 아름답다. 그 형태는 기능적일 뿐 아니라 조형적으로도, 어떤 형식주의 조각 못지않게 탁월하다. '삶의 조각'이란 이런 것이다. 관계의 미학의 정수를 다른 곳에서 찾을 필요는 없다. 예술은 삶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축제의 순간들과 가족과 함께 떠나는 여행과 손때 묻은 보잘 것 없는 물건들 속에도 있다. 이것이 모더니즘의 중독에서 깨어난 다음 세대의 미학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 시대는 파고다의 주변부에서 허락되곤 하는 평화가 아니라, '무의식적인 노예상태'가 지배하는 세계로 더 깊숙이 들어서고 있다. 아시아의 다른 어떤 나라보다 가혹한 희생자의 삶을 살아온 미얀마도 여기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특별한 탈속의 평화가 일상을 이끄는 이 나라에서도 정치적인 것은 결코 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산 민(San Minn, 1951~)은 미얀마 사회에선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로 감리교 계 고등학교에 다녔고, 그때부터 학생들의 예술운동을 이끌었다. 1975년, 사회적, 정치적 이슈를 다룬 《거친 시선(Wild Eyes)》전을 기획한 죄로 체포되어 1978년 12월까지 3년간 투옥되었고, 이후로도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못하도록 강요받았다. 그의 어떤 전시는 철거되었고, 어떤 그림들은 전시가 금지되었다. 1979년부터 양곤예술대학생들이 중심이 되는 '강가우 빌리지 아트 그룹(Gangaw Village Art Group)'을 결성했고, 1989년에는 아웅 민(Aung Myint)과 함께 젊은 작가들을 돕기 위해 '인야 갤러리(Inya Gallery)'를 창립하기도 했다.

산 민이 투옥을 감수하면서 맞섰던 것은 특별히 미얀마의 현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표현의 자유가 엄격하게 제한된 사회에서 권력에 대항하는 정신, 작품을 팔아 생존해야 하는, 시장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상황에서 감수해야 하는 희생의 한계, 더 나아가 이러한 이중의 딜레마 앞에서 현대작가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사회와 역사의 어두운 측면을 다룰 수 있는가라는, 이 시대 예술이 보편적으로 당면해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산 민은 이 문제에 대해 더 나은 해답을 알지 못하며, 유난히 무력감을 드러낼 뿐인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대변자로서 이 문제와 맞서 왔던 것이다.

모아 똔(Moat Thone, 1956~)은 마라의 군대와 맞서는 부처의 용맹스러운 싸움을 그린다. 마라의 군대에는 코끼리, 황소, 호랑이, 사자, 용 같은 온갖 사나운 짐승들이 포진해 있다. 이 싸움에 등장하는 자신의 긴 머리를 붙잡고 있는 여인은 과거 부처의 친척이었던 여신으로, 그녀가 머리를 만질 때 그 머릿결은 큰 파도를 일으킨다. 그 거대한 파도가 한번 일어날 때마다, 마라의 군대는 말 그대로 종이인형처럼 맥을 못 추며 퇴각한다.

모아 똔은 다른 노선으로 경력을 쌓아 온 작가다. 그는 1980년대 신문과 잡지에 자신의 일러스트레이션을 기고하면서 성공적으로 명성을 쌓았다. 그것은 그에게 돈과 예술이라는, 서로 무관하고 타협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두 세계를 양자택일하지 않아도 되는 가능성을 제공했다. 하지만, 그러한 경험은 그에게 시적인 양식과 함축된 이야기 구조, 그리고 의도적으로 힘들이

6) 앞의 책, pp.154~155.
7) Aung Min, 『Myanmar Contemporary Art』, td. Aung Day, 2017, p.241.

8) Nicolas Bouvier, Chronique japonais, Petite Bibloteque Payot, Paris, 1991.

지 않는 터치로 구성된 회화 스타일이라는 별도의 선물도 제공했다. 1988년 이후 여러 이유로 빠른 붓질과 자유로운 유동에 기반하는 추상 스타일을 포기하고, 잠시 일러스트레이션에만 집중하다가 1992년경부터 현재의 새로운 회화의 길로 접어들었다. 그것은 그 자신의 해학문학적 감성과 상징적 화법으로 조율된 미얀마의 전통적인 도상들을 주제부로 부각시키는 방식이다. 서구의 영향으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하나의 스타일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다.

뤼 민(Lu Min, 1947~)은 연극이 시작되기 전이나 도중, 무대 뒤의 여인이라는 미얀마의 전통적인 주제를 자신의 것으로 계승한다. 하지만 이 세계에서 전통은 시간의 벽을 넘고, 문명의 경계를 넘어 현재에 말을 건넨다. 색은 비록 바랬더라도, 그 표정과 동작만큼은 여전히 생생한 전통이다. 반면, 정작 시종 등을 돌린 채이거나 심지어 얼굴이 없기도 한 것은 역설적이게도 현재다. 이 뒤집힘 또는 전복은 반드시 전통, 또는 뿌리에 의해 보완되어야만 하는 '지금'이라는 시간의 결핍이나 부재의 비유일 수 있다.

분명한 것은 뤼 민의 세계를 독특하고 현대적인 것으로 만드는 빛이 어디서 오는가이다. 그 빛은 렘브란트 반 레인의 것처럼 강렬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은은하게 번져나가는 명암법(chiaroscuro)에 의한다. 뤼 민은 그 광원이 황금빛으로 감싸인 파고다의 중심, 곧 부처의 사리탑(舍利塔)이라고 말하고 싶어 한다. 이 시대 역시 그 빛을 필요로 한다는 자신의 믿음과 함께 말이다.

미얀마 현대미술과 반얀 나무(Banyan tree)의 교훈

'미얀마 현대미술'이라는 표제어를 붙이기는 했지만, 이 전시의 목적이 미얀마 현대미술에 대한 체계적인 보고서를 꾸미는 것에 있지는 않다. 만일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전혀 다른 접근들이 가능했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이 전시가 미얀마 동시대 미술의 여러 층위에 대한 의미있는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참여 작가들 모두는 미얀마 현대미술의 매우 비중있는 작가들이며, 아시아의 주변국들 뿐 아니라 서구에도 그 이름이 알려진 작가들이다. 앞서 언급된 바 있던 이론가 아웅 민의 저서 『Myanmar Contemporary Art』의 구분을 따르면, 이 전시의 참여 작가인 아웅 민은 '모더니즘의 정점' 을 대변하는 화가인 반면, 민 웨 웅은 '포스트모더니즘' 장에서 다뤄진다. 산 민은 첨예한 현실인식에 기반해 저항 미학을 실현했던 반면, 틴 윈이나 틴 타이 아웅은 욕심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사는 미얀마 사람들의 일상에서 영감을 얻는다.

참여 작가들 가운데 최고령인 아웅 민은 1946년생인 반면, 모뇨는 1975년생이다. 양식과 미학적 태도, 세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아웅 민의 〈미얀마 여인〉과 민 웨 웅의 〈사원으로 가는 길〉 연작, 모뇨의 평화와 명상이 깃든 〈시적인 시〉 연작 모두는, 자신들의 땅에 깊이 뿌리내린 축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들 모두는 그들이 숨 쉬는 공기, 그들이 밟는 땅, 그들이 마시는 물, 그리고 그들이 지닌 사상에서 시작하고, 잠시 떠났다가도 어느덧 되돌아온다. 그렇더라도 그것이 전통회화, 사실주의, 인상적 해석, 형식주의적 실험이 공존하고, 그 각각의 예술적 비전과 태도가 융합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생동감 있게 탐색하는 미얀마 현대미술의 행보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디지털 분야를 포함해 다양한 매체적 분화가 아직 덜 활발한 것은 그들의 삶의 과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들의 예술적 잠재성과 가능성에 대한 판단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될 잠정적 현상일 뿐이다. 일찍이 미얀마 현대미술에 주목하면서 『버마의 회화(Burmese Painting)』을 썼던 앤드류 래나르(Andrew Ranard)는 이를 '반얀 나무(Banyan tree)'에 비유했다. 반얀 나무는 자신이 스스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을 구성하는 수많은 작은 가지들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나무의 크기로 그 가치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준다.

이 전시의 우선하는 취지는 언젠가 자크 엘륄(Jacques Ellul)이 미래로 나아가는 길로 제시한 바 있는 "이웃의 재발견"에 있다. 짧은 기간 내에 그것을 넘어서는, 파란한 역사의 파도를 넘어온 미얀마의 예술에 대해 갑론을박하는 것은 주제넘은 것일 수밖에 없는 일이기에 더욱 그렇다. 그렇더라도 이 전시가 어느 정도 성공적이라면, 미얀마 미술의 아직 충분히 꽃피지 않은 가능성을 전하는 소박한 역할쯤은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전시를 준비하는 과정에 도움을 준 이들에게 지면으로나마 대해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전시에 기꺼이 참여해준 작가들, 특히 두 번의 양곤 방문 내내 언짢은 기색 하나 없이 동행해준 모뇨 작가, 양곤예술대학의 부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 민간 대사로서 손색이 없는 서 준호 독립 큐레이터, 마지막으로, 이 전시를 있게 한 한세 예스24 문화재단의 조 영수 이사장님과 배 연호 과장, 그 밖의 관련자들에 고마움을 표하는 바이다. 《미소의 땅, 관계의 미학을 머금다》전은 이들 모두가 힘을 모았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

민 웨 웅
사원으로 가는 길 Towards Monastery,
2016, Acrylic on canvas, 152x129.5cm

MYANMAR

"Why Are We So Lonesome?"

PhD **Sim, Sang Yong**
Professor, Dept. of Curatorial Studies and Art Management, Dongduk Women's university

"I came to this land for it was the origin of smiles. Of course, a smile here arises naturally from within oneself. [...] I hope, one day, when it's time, to die here, or at a temple in this country."

–Christine Jordis– [1]

Why Are We So Lonesome?

Christine Jordis noted the lonesomeness experienced by the people of West as a price paid for by the Western modernity.[2] This was regarding a civilization where the people, "with the need to give and share with others forgotten," spend their entire lives, practicing to 'stand alone,' which is utterly meaningless and forlorn, and draw their last breath in a "hospital room or a nursing home." Indeed, the West has discarded values such as the ability to act with a sense of resolve as well as dedication and the spirit of self-sacrifice for the sake of liberty. And nearly all of these renounced values desperately need to be restored today.

'Aesthetics of Relationships' Beyond the Aesthetics as Agent of Lonesomeness

In Myanmar, at least, loneliness is not yet common. Gentleness, peace and compassion··· these are stories related to the 'definition of life in Myanmar' told by a group of people walking with their backs turned against the viewers in the paintings by Min Wae Aung (1960~) since 1994. At first, it was a story of a family returning home after a hard day's work. The gaps in their weary lives are, however, filled with love for life. When the figures in the procession are monks, their journey begins in this world and leads them to the next. Min Wae Aung typically paints such processions on a large canvas, and this is part of the aesthetic strategy to invite the viewer to the procession. The procession of the people walking, which overwhelms the view, appears orderly, but such order is not coerced or forced. Min Wae Aung illustrates a world using bright orange or yellow colors or brilliant gold colors, which are the traditional colors of Myanmar. The world is one where "you cannot find any seniors who grow old alone, having nothing to do except to wait for death, or who become forgotten because they are a has-been."

The deep wrinkles shown on the ethnic minorities in Myanmar such as the Naga people, for example, drawn Tin Win (1952~) are clear signs of that life has not been kind to them. Around 85% of the population farm for a living, which is difficult work. However, there is no room for loneliness attacking the souls of those in the so-called civilized societies on their faces. While Tin Win paints the history and traditions of the Naga people, we hear about the universality of existence. Tin Win studied in Mandalay in the 1960s when there was a boom of Western modern art, but later turned to realism and took interest in the traditional art forms of Myanmar, especially traditional murals.

As for Aung Myint (1946~), the oldest of the participating artists, his mother, whom he had lost in childhood and yearned in pain for many years, has long been the subject of his works. Aung Myint, in his younger years, was on the forefront of accepting Western modern art. Although he experimented with different styles from Impressionism to Cubism, he began turning to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Myanmar art in 1996. His works that had previously been marked by an eruption of raging emotions and intense colors have been replaced by those characterized by tranquil and slow lines, traditional paper and traditional themes, with the《Mother and Child》series being a good example. This is because "mother," to him, is a "place where his inspiration is secretly revived."

In the landscapes depicted by Moe Nyo (1976~), there is always a Buddhist temple at the center of it all. His landscapes do not feature any people who seem to roar and snarl at the top of their lungs to say, "Yes," or "No." The only speakers in his world are a couple of trees, flowers in full bloom, a clear sky, and clouds. The material system is reduced to the optimal state for meditation and poetry by his watercolor painting techniques that make use of adequate moisture and permit the bare minimal amount of pigments. The sensuous appreciation of beauty is permitted only to the extent of the granules of pigments used with a sense of restraint. The landscape paintings of Moe Nyo is a realization of the 'aesthetics of emptiness' as well as a very high level of peace that is finally acquired only when one's worldly desires do not get carried on beyond one's means and the share reserved for one.

Unlike the meditative landscapes created by Moe Nyo, the works of Tin Htay Aung (1976~) depict a cluster of oxcarts formed around a pagoda. Every year, when the pagoda festival is held in the vast rural areas of central Myanmar, people gather from near and far on oxcarts to the pagoda, thereby resulting a large collection of pagodas around the pagoda. The oxcarts in all sorts of colors and shapes are a refined

1) 크리스틴 조디스, 『미얀마 산책』, 고영자 역(서울: 대숲바람, 2012) p.55, pp.160~161.
2) 앞의 책, p.43.

reflection of the lives of these people. This is why they are beautiful. Their form is excellent, not just functionally but also formatively like a piece of formative sculpture. That is what a 'piece of life' is. Art is not always far from life. It lies in festivities, trips taken with one's family, and even the old and stained objects, which seemingly have no value. This will be the aesthetics of our next generation after awakening from an overdose of modernism.

San Minn (1951~) attended a Methodist high school, which is uncommon in Myanmar society, and led art movements among students ever since. In 1975, he was arrested for planning《Wild Eyes》, an exhibition dealing with social and political issues, and imprisoned for 3 years until December 1978. Even after his release, he was coerced to stop painting. Some of his exhibits were torn down, and some of his paintings were prohibited from being exhibited. In 1979, he formed the Gangaw Village Art Group, with the students of art colleges in Yangon playing the central role, and in 1989, he jointly established Inya Gallery to assist young aspiring artists with Aung Myint. The story of enduring imprisonment to stand against authority is not confined to Myanmar. It is an issue universally faced by art of the present times in relation to the spirit of resisting against authority in a society where the freedom of expression is strictly restricted, the threshold to which sacrifices can be withstood under the circumstances where artists must sell works in order to make ends meet and where the current market demands have become the most decisive factor in whether they can sell their works, and furthermore, the question of how far can contemporary artists go as to dealing with the dark sides of society and history when faced with these dilemmas.

Moat Thone (1956~) paints a brave fight of the Buddha against Mara's army, which is composed all kinds of ferocious beasts such as elephants, bulls, tigers, lions and dragons. The woman who appears in this battle holding her long hair is a former relative of the Buddha, and when she touches her hair, it creates a ripple of massive waves. Every time a giant wave occurs, Mara's army retreats without being able to put up a fight. Moat Thone is an artist who has gained experience through a unique channel. In the 1980s, he successfully came into prominence by contributing illustrations to newspapers and magazines. This experience has presented him with what could be described as a special gift: a signature poetic style and implicit story structure as well as a painting style composed of deliberately light touches. After 1988, he gave up the abstract style created based on rapid brushstrokes and free fluidity for various reasons and concentrated on illustrations for a while. Then, around 1992, he entered a new path of painting and has followed it to this day. This was how a style that maintains a considerable distance from Western influences was created.

Lu Min (1947) also succeeded the traditional themes of Myanmar such as before or during a theatrical play or the woman behind stage. Nevertheless, his world of art appears original because of his somewhat expressionistic style, which is coordinated by the intense contrasts that seem to have been inspired by Rembrandt's chiaroscuro. When he applies this light effects method to the landscape outside the theater, the world depicted gives the impression that it lies on the boundary between this world and the other world.

Contemporary Art of Myanmar and the Moral of the Story of the Banyan Tree

The first and foremost purpose of this exhibition is to "rediscover our neighbors," which was proposed by Jacques Ellul as a way toward the future. All of the participating artists are very prominent contemporary artists of Myanmar and are renowned not only in the neighboring countries in Asia but also in the West. According to art theorist Aung Myint's book, 『Myanmar Contemporary Art』, Aung Myint, one of the participating artists in this exhibition, is a painter representing the "pinnacle of Modernism," while Tin Win and Min Wae Aung are described in the chapter on Post-Modernism. San Minn realizes the aesthetics of resistance, based on a keen awareness of reality, whereas Tin Win and Tin Htay Aung get inspired by the day-to-day lives of the people of Myanmar who live peacefully, without succumbing to greed. Aung Myint, the oldest of the participating artists, was born in 1945, while Moe Nyo was born in 1975. Despite their generational gap and differences in their styles and aesthetic attitudes, however, Aung Myint's 〈Myanmar Lady〉, Min Wae Aung's 〈Towards Monastery〉 series, and Moe Nyo's 〈Poetic Poem〉 series embodying peace and meditation all center on the roots that have deeply penetrated into their land.

The fact that there is not much variety when it comes to the medium including digital media reflects the process of their lives, and it is just a temporary phenomenon that should not be used as a basis for judging their artistic potential and possibilities. Andrew Ranard, who took note of Myanmar contemporary art early on and authored 『Burmese Painting』 compared it to the Banyan tree. The moral behind the story of the Banyan tree is that one should never judge the value of a tree based on its size, as the countless small branches constituting the tree that maintains it.

ARTISTS

민 웨 웅
Min Wae Aung

산 민
San Minn

뤼 민
Lu Min

틴 윈
Tin Win

아웅 민
Aung Myint

모아 똔
Moat Th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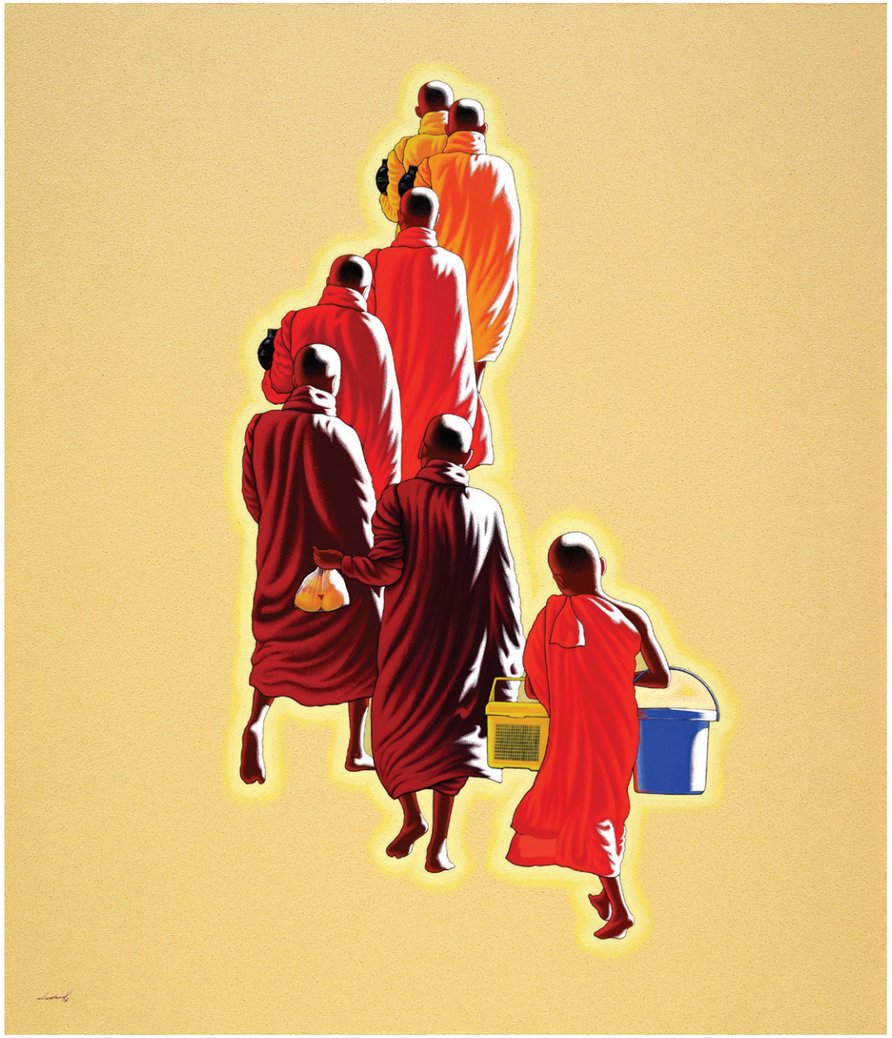
모 뇨
Moe Nyo

틴 타이 아웅
Tin Htay A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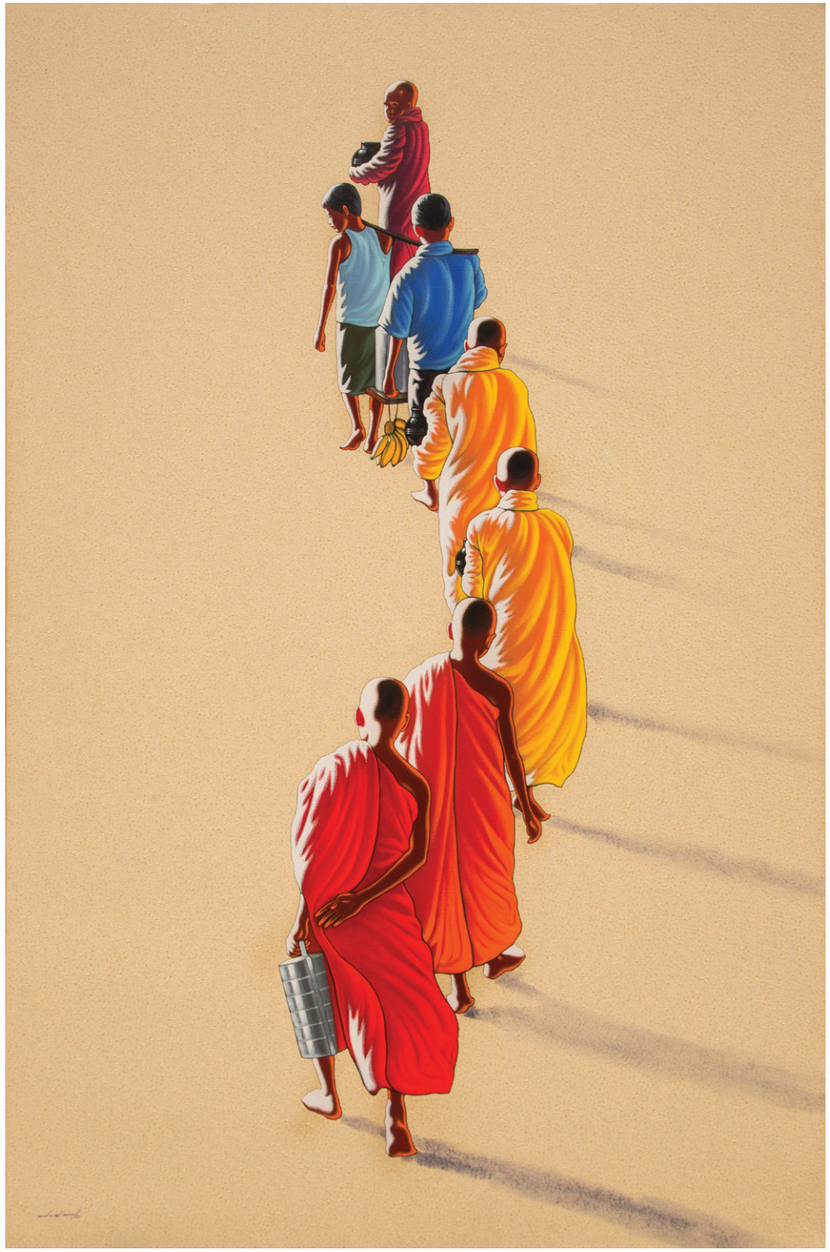
Min Wae Aung

민 웨 웅

햇살 아래서 Under Sunshine,
2012, Acrylic on canvas, 152x183cm



사원으로 가는 길 Towards Monastery,
2016, Acrylic on canvas, 152x129.5cm



사원으로 가는 길 Towards Monastery,
2012, Acrylic on canvas, 183x122cm

사원으로 가는 길 Towards Monastery,
2015, Acrylic on canvas, 130x193cm

소박함의 미 Simple Beauty,
2007, Acrylic on canvas, 127x127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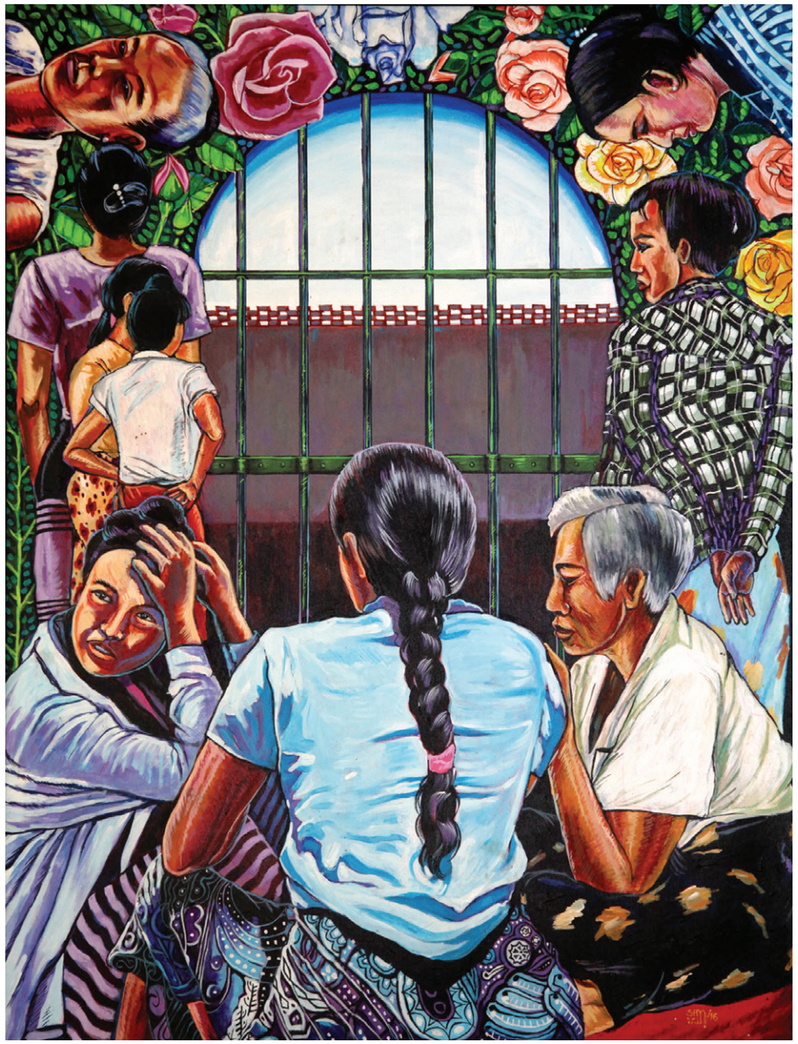
소박함의 미 Simple Beauty,
2007, Acrylic on canvas, 101.6x91cm

San Minn

산 민

악마들 The Devils,
2011, Acrylic on canvase, 117x214cm

그들은 감옥에서 산다 (I) They lived in prison(I),
2016, Acrylic on canvase, 133x101cm



상전(上典) Hot-shot,
1987, Acrylic on canvase, 71x38cm

문화 파괴자 Culture Killer,
2012, Acrylic on canvase, 137x96.52cm

듀엣 Duet,
2004, Acrylic on canvase, 117x82cm

길 위의 남자들 Men on the Road,
1986, Oil on canvas , 87x90cm

Twon Tay Thein Win 변호사 A lawyer called Twon Tay Thein Win,
2007, Acrylic on canvase, 122x73cm

Lu Min

뤼 민

쉐지곤 파고다 ShweZiGon Pagoda,
2018, Oil on canvas, 91.5x91.5cm

세대 #01#01 Generation,
2018, Acrylic on canvas, 112x112cm

세대 #02 #02 Generation,
2018, Acrylic on canvas, 112x112cm

Tin Win

틴 윈

창을 든 나가족 남자 Naga man with Spear,
2018, oil on canvas, 122x92cm

호랑이 발톱 장식을 한 나가족 남자 Naga man with tiger claws,
2018, oil on canvas, 92x76cm

멧돼지 장식을 한 나가족 남자 Naga man with tusk of boar,
2018, oil on canvas, 76x92cm

행복한 나가족 남자 Happy Naga man,
2018, oil on canvas, 76x92cm

나가족 족장 A leader of Naga tribe,
2018, oil on canvas, 137x107cm

은화 장식한 아–카족 여인 A-Kha lady with silver coins,
2018, oil on canvas, 76x92cm

하얀 구슬 장식한 아–카족 여인 A-kha lady with white beads,
2018, oil on canvas, 76x92cm

파이프를 문 라후족 어머니 Lahu mother with pipe,
2018, oil on canvas, 122x92cm

어머니와 아이 Mother and Child,
2018, oil on canvas, 122x92cm

리수족 여인 Lisu lady,
2018, oil on canvas, 122x92cm

Aung Myint

아웅 민

미얀마 여인 (A) Myanmar Lady (A),
2016, Acrylic on paper & canvas, 107x107cm

미얀마 여인 (B) Myanmar Lady (B),
2016, Acrylic on paper & canvas, 107x107cm

미얀마 여인 (C) Myanmar Lady (C),
2016, Acrylic on paper & canvas, 107x107cm

Moat Thone

모아 똔

부처와 마라 (1) Buddha and Ma'ra(1),
2018, Acrylic, 183x183cm

부처와 마라 (2) Buddha and Ma'ra(2),
2018, Acrylic, 112x158cm

부처와 마라 (3) Buddha and Ma'ra(3),
2018, Acrylic, 112x158cm

Moe Nyo

모 뇨

시적인 시(詩) (1) Poetic Poem Series (1),
2018, Transparent watercolour on paper, 91.5x127cm

시적인 시(詩) (2) Poetic Poem Series (2),
2018, Transparent watercolour on paper, 91.5x127cm

시적인 시(詩) (3) Poetic Poem Series (3),
2018, Transparent watercolour on paper, 56x76cm

시적인 시(詩) (4) Poetic Poem Series (4),
2018, Transparent watercolour on paper, 56x76cm

시적인 시(詩) (5) Poetic Poem Series (5),
2018, Transparent watercolour on paper, 56x76cm

Tin Htay Aung

틴 타이 아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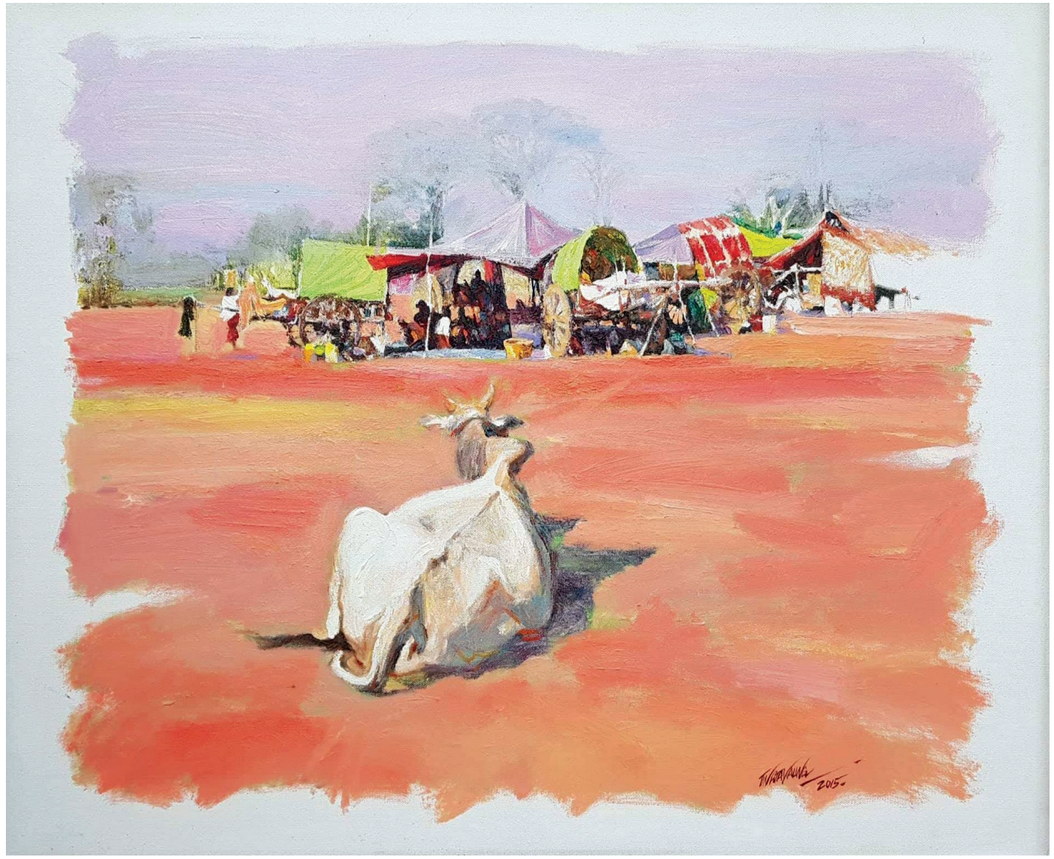
수련식(3) At The Novitiation Ceremony (3),
2018, Oil on canvas, 91.5x122cm

소달구지 집결지 (5) Bullock Cart Camp (5),
2015, Oil on canvas, 76x91.5cm

수련식(2) At The Novitiation Ceremony (2),
2018, Oil on canvas, 122x183cm

소달구지 집결지 (1) Bullock Cart Camp (1),
2018, Oil on canvas, 122x183cm

소달구지 집결지 (3) Bullock Cart Camp (3),
2015, Oil on canvas, 76x91.5cm



소달구지 집결지 (4) Bullock Cart Camp (4),
2015, Oil on canvas, 76x91.5cm

Biography
약 력

Min Wae Aung
민 웨 웅

Born in 1960, Danubyu, Myanmar
State School of Fine Art, Yangon

2018 The Way Golden Stair, Art District P, Busan, Korea
2016 Reclection of Beauty, Insa Art Center, Seoul, Korea
2016 Korea–Myanmar Art Exchange Exhibition, Dasom Gallery, Busan, Korea
2015 Myanmar–Korea Art Exchange Exhibition, New Treaure Art Gallery, Yangon, Myanmar
2014 Min Wae Aung–Travellers, T.H.E.O. Art Projects, ION Art Gallery, Ion Orchard, Singapore
2014 ASEAN–Repubilc of Korea Summit 2014, Busan Museum of Art, Busan, Korea
2010 Golden Heritage, Asia Fine Art Limited, in association with Wan Fung Art Gallery, Shanghai, China
2009 Another Journey to Asia, Global Art Source, in association with Art–St–Urban, Lucerne, Switzeland
2007 Burmese Masters Hong Kong 2007, Exchange Square, Central, Hong Kong
2004 On the Road, The Annex Gallery, New York, USA
2003 From Natma Mountain to Dhanyawaddi, National Museum, Yangon, Myanmar
2001 Min Wae Aung First Solo Show in Myanmar, National Museum, Yangon, Myanmar
2000 Asian Art in London, Kings Road Gallery, London, UK / 〈Six Myanmar Artists, In Search of Tranquillity, Lianberis, Gwynedd, UK
1997 ASEAN Masterworks, National Gallery, Kuala Lumpur, Malaysia
1994 4th Asian Art Exhibition, Fukuoka Art Museum, Japan

San Minn
산 민

Born in 1957, Yangon, Myanmar
One of the founders of Gangaw Village Group Wild Eye Group and The Inya Gallery of Art

2018 Fifteenth One Man Show (Prison Series), Lokanat Art Gallery, Yangon, Myanmar
2018 Museum Activity Art Exhibition, National Museum, Yangon, Myanmar
2018 The way golden stair, Myanmar–Korea Contemporary Exchange Exhibition, Busan, Korea.
2018 Colours of Friendship, Thailand–Myanmar Art Exhibition, National Museum, Yangon, Myanmar
2017 Welcome to Art in Myanmar! Commemoration of the Sister City Relationship between Yangon City and Fukuoka City, Fukuoka, Japan
2016 In Commemoration of 2016 Summer Olympics and 2016 Summer Paralympics Sports Festivals in Art " Who Wins a Goal Medal", Fukuoka Asian Art Museum, Fukuoka, Japan
2015 Burma by Proxy, Art at the Dawn of Democracy, Hong Kong Visual Art Centre, Hong Kong
2015 Justice Under Construction, University of San Diego, California, U.S.A.
2014 Banned in Burma, Painting under Censorship, The Nock Art Foundation and Hong Kong Visual Art Centre, Hong Kong
2014 MIAF–UNESCO Art Festival, Seoul Art Center, Hangaram Museum, Seoul, Korea
2013 Welcome to the Jungle, Contemprary Art in Southeast Asia, Contemporary Art Museum, Kumamoto City, Japan
2012 Freedom in Blossom, Gangaw Village and Experimental Art in 80s Burma, Fukuoka Asian Art Museum, Fukuoka, Japan
2009 We Are Burma Exhibition, The Leila Gallery, California, U.S.A.
2007 Myanmar Contemporary Art Exhibition, Chiang Mai University Art Museum, Chiang Mai, Thailand
2001 Oriental Curtain, Varcaus Art Museum, Varcaus, Finland
1999 Philip Morris Group of Companies Asean Art Awards, Malaysia
1996 New Paintings from Myanmar, Substation, Curated by Art–2, Singapore
1980 First One Man Show, The Lokanat Art Gallery, Rangoon, Burma

Lu Min
뤼 민

Born in 1947, Dewai, Myanma
State School of Fine Art, Yangon

2017 Yangon – Bali – Chiang Mai Art Exchange Exhibition, Chiang Mai, Thailand / Yangon – Bali – Chiang Mai Art Exchange Exhibition, Bali, Indonesian.
2015 Myanmar–Korea Art Exchange Exhibition, New Treaure Art Gallery, Yangon, Myanmar
2014 China–Myanmar Art Exchange Exhibition, China
2013 My Dream Land Art Exhibition, International Business Center (IBC), Yangon, Myanmar
2007 Myanmar Contemporary Art Exhibition, Chiang Mai University Art Museum, Thailand
2004 Art of Spring Exhibition, National Museum, Myanmar
2003~2004 Sovereign Annual Contemporary Asian Art Competition 2003–2004, Hong Kong (Final Listed in 30)
2003 Through Myanmar Eyes, Art Seasons Gallery, Singapore
1999 Solo Show, The Myanmar Gallery of Contemporary Art, Myanmar
1998 All Myanmar Art & Sculpture Exhibition, National Museum, Yangon, Myanmar

Tin Win
틴 윈

Born in 1952, Minbu, Central Myanmar.
The State School of Fine Arts in Mandalay in 1970.
Established Beikthano Gallery in 1995.

2018 Hatyai International Arts Camp, Hatyai, Thailand.
2017 Lincoln Memorial Exhibition, Naypyitaw, Myanmar.
2016 The 5th International Calligraphy and Painting Exchange Exhibition, Tokyo Metropolitan Art Museum, Japan
2016 Malaysia International Biennale ,DAIICHI Modern Art Gallery, Penang, Malaysia
2016 The 1st Mekong Region Contemporary Artists Workshop, Khon Kaen University, Thailand
2016 ECHO FROM NATURE International Art Exhibition, Hanoi, Vietnam
2015 Masters of Myanmar Art, The EDGE Gallerie, Kuala Lumpur, Malaysia
2015 Silk Journey to Art World Tour Exhibition, Beijing, China
2015 Greater Mekong Sub–Region Art Sharing Thailand, Laos, Myanmar, Cambodia, Vietnam, Chian, Chaing Rai, Thailand
2009 We are Burma, The Leila Gallery, USA
2008 Hill Tribe of Myanmar, Suvannabhumi Gallery, Chaing Mai, Thailand
2007 Burmese Contemporary Art Exhibition, Shanghai
2007 Myanmar Contemporary Art Exhibition, Chaing Mai University Art Museum, Thailand
2007 Burmese American Art Exchange, American Center, Yagon
2006 Mission of Burma, San Francisco, USA
2005 Burma Stars Exhibition, Hong Kong
2004 Six Country Exhibition, Soul Art, Australia
2004 Myanmar Masters Exhibition, Art Seasons, Singapore
2003 Burmese Days Exhibition, Zee Stone Gallery, Hong Kong
2003 The Beppu Asia Biennale of Contemporary Art, Beppu, Japan

Biography
약 력

Aung Myint
아웅 민

Born in 1946, Yangon, Myanmar
Self-taught

2015 15 A.M. 10N Art, 10N Orchard, Singapore
2014 14 A.M., TS:1, Yangon, Myanmar
2013 "No Country" Contemporary Art for South and South East Asia, Solomon Guggenheim Museum, New York City, USA
2012 Exposition L'ARTAU MYANMAR, Galerie Art Concorde, Paris, France
2012 Inner Resources: Burma: Aung Myint an Chan Aye, Clark house Colaba, Bombay, India
2010 Citizen of the World: Recent Works by Aung Myint, Yuvuz Fine Art, Singapore
2009 ASEAN Contemporary Art Exchange, Myanmar 2009, New Zero Art Space, Yangon, Myanmar
2007 Aung Myint's Solo Show, Karin Weber Gallery, Hong Kong
2007 Myanmar Contemporary Art Exhibition, Chaing Mai University Art Museum, Thailand
2004 Crossing/Knotting, Nordbahnhaf, Berlin, Germany
2003 The Rockefeller Foundation, Phnom Penh, Cambodia
2001 Oriental Curtain Group Exhibition, Varcaus Art Museum, Helsinki, Finland
1998 Asian Wind, Shinseido Hatanaka, Tokyo, Japan
1997 ASEAN Masterworks, ASEAN leaders Summit, Kuala Lumpur, Malaysia
1996 New Paintings from Myanamar, The Substation, Singapore
1995 Omnibus: Fine Artists from Myanmar, Gallery Vice, Kyoto, Janpn

Moat Thone
모아 똔

Born in 1956, Pakokku, Myanmar
State School of Fine Arts in Mandalay

2012 Solo Art Show(water colour), Lawkanat Art Gallery, Myanmar
2011 Solo Show(Oil), Lawkanat Art Gallery, Myanmar
2011 Solos Show(Acrylic),Sule House Gallery, Myanmar
2004 Solo Art Show (Oil),Yadanarpura Art Gallery, Myanmar
2002 Solo Show(water colour),AZADA Art Gallery, Myanmar
1998 Solo Show(water colour), N.M Gallery, Myanmar
1996 Solo Show(water colour), N.M Gallery, Myanmar
1995 Second Solo Show(water colour), Art Club Gallery
1995 First Solo Show(water colour), Lawkanat Art Gallery, Myanmar

Moe Nyo
모 뇨

Born in 1976, Pwintbyu, Myanmar
University of Culture Yangon (B.A. and PGDA in Painting

2017 October, Incheon Global Cities Arts Exchange Grand Festival, Incheon Culture and Arts Center, Incheon Metropolitan City, Korea
2017 9th Solo Art Show, The Yangon Gallery, Myanmar
2016 The Group Exhibition ASEAN-China Academies of Fine Arts, Tianjin Academy, China
2015 8th Solo Art Show, Suvannabhumi Art Gallery, Chiang Mai, Thailand
2014 Asian Water Colour Expression II 2014, Bentara Budaya Bali, Indonesia
2014 Burma/Vietnam/Cambodia: Leading Light Group Exhibition, Toronto, Canada
2014 The 3rd GNWP Shanghai Exhibition, Shanghai Hongqiao Contemporary Art Museum, Shanghai
2012 6th Solo Art Show, Suvannabhumi Art Gallery, Chiang Mai, Thailand
2012 Asian Watercolor Expression 2012, 4 City Safari Exhibition, Indonesia
2011 5th Solo Show, Ministry of Culture Art Gallery, Myanmar
2010 4th Solo Show in Chiang Mai, Suvannabhumi Art Gallery, Chiang Mai, Thailand
2009 August, Burmese Water Colour, Asia Fine Art Gallery, Hong Kong
2007 July, Myanmar Contemporary Art Exhibition, Chiang Mai University, Chiang Mai, Thailand
2007 March, Burmese Magic Art Exhibition, Asia Fine Art, Fringe Club, Hong Kong
2006 A Season of Burmese Art in Chiang Mai, Suvannabhumi Art Gallery, Chiang Mai, Thailand
2003 First Solo Show, AZADA Art Gallery, Myanmar

Tin Htay Aung
틴 타이 아웅

Born in 1975, Aung Lan Township, Myanmar
National University of Arts and Culture, Yangon, Myanmar (B.A.)
China Academy of Art, Hanzhou, China (M.A. and Ph.D.)

2017 Aesthetic Journey 3 Art Exhibition (Third Solo show), NUAC Art Gallery, Cultural Museum, Mandalay, Myanmar
2015 Masters of Myanmar Art, The Edge Galerie, Kula Lumpur, Malaysia
2014 Yixiang Siyu: Oil Painting Exhibition, Tian Yi Ge Lib rary, Ningbo, China
2014 Dadao: Group Exhibition of Chinese and Overseas Artists from the China Academy of Art, Zhejiang Science and Technology Museum, Hangzhou, China
2014 All Art Under the SUN (6), China Academy of Art, Hangzhou, China
2014 Aesthetic Journey 2 Art Exhibition (Second Solo show), THIRI Art Gallery, Mandalay, Myanmar
2010 Aesthetic Journey 1 Art Exhibition (First Solo show), French Center, Mandalay, Myanmar
1998 Nature Hug, ASEAN Youth Camp Art Exhibition, Philippines

2018 한세예스24문화재단 국제문화교류전

미소의 땅 미얀마, 관계의 미학을 키우다

주최 HANSAE YES24 FOUNDATION
기간 2018.9.12 – 2018.9.17
장소 인사아트센터
전시감독 심상용 동덕여대 큐레이터학과 교수

후원 외교부, 한–아세안 센터, 아세안문화원
전시홍보 이앤아트
도록 디자인 및 제작 DB Communication

2018 HansaeYes24 Foundation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Exhibition

An Aspect of Myanmar Art

Organized by HANSAE YES24 FOUNDATION
Exhibition Period Sep12, 2018 – Sep 17, 2018
Exhibition Venue Insa Art Center, Seoul, Korea
Chief Director PhD Sim, Sang Yong, Professor, Dept. of Curatorial Studies and Art Management, Dongduk Women's University

Partner with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SEAN–Korea Center, ASEAN Culture House
Public Relations ENART
Catalogue Design DB Communication

앞 표지 그림: 민 웨 웅, 모뇨, 틴 윈 작품(왼쪽부터)
뒤 표지 그림: 틴 타이 아웅, 모아 똔, 아웅 민, 뤼 민, 산 민 작품(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2018 HansaeYes24 Foundation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Exhibition